

미식의 밤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집까지는 800m가 넘었기에 재경은 무거운 걸음으로 8번 출구로 향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안내하는 8번 출구에서 자취방까지의 거리는 13분, 빠른 걸음으로 가도면 10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재경은 역세권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금을 올려받던 집주인을 떠올렸다. 생각보다 늦어진 귀가와 오랜만의 음주에 정신이 몽롱했다. 재경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자취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출구에 가까워지자 찬 공기가 느껴졌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한숨을 쉬자 늦겨울임에도 입김이 일었다. 아직 2월이라 바람이 찼다. 편집장이 직접 내보낸 미팅 자리라 재경은 영하의 날씨에도 블라우스와 코트를 챙겨입었다. 밤바람에 몸이 시려 가방에 든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다. 8번 출구의 계단을 다 오를 무렵 재경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집 도착했어?]

엄마의 문자였다. 재경은 그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자 똑같은 진동이 연속으로 울렸다.

“어.”

카톡이면 몰라도 전화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재경은 취기를 숨기며 전화를 받았다.

“오늘 못 올라오는 거지? 집이야?”

재경은 오늘 오후, 미팅이 일찍 끝나면 본가로 귀가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휴대폰을 확인할 정신 없이 늦어진 미팅에 아직 그것을 반복하지 못했다.

“응, 미팅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아직 집은 아니고.”

집이라고 둘러댈까 하다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차 소리에 그만두었다. 휴대폰 너머로 얼른 들어가라는 잔소리가 들렸고 재경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 뒤로 이어질 말이 없어 전화는 금세 끊겼다. 전화가 끊기고도 재경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손이 시렸는데 휴대폰을 떼어내기가 힘들었다. 재경은 자주 배고팠고 종종 우울했고 가끔 사라지고 싶었다. 미팅에서 사시미를 먹을 때도, 상사가 권하는 모든 초밥을 먹느라 목이 막혔을 때도, 밥알을 내리려 장국을 떠먹었을 때도 재경은 배가 고팠다. 그칠 줄 모르는 허기는 끊임없이 재경을 두드렸다. 재경이 휴대폰을 내리자 휴대폰의 열기에 데워졌던 오른쪽 뺨에 스치는 바람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재경은 짧은 고민을 마치고 출구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소리에 맞춰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했다. 일부러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앞문에는 두 개 달린 종이 뒷문에는 세 개나 달려있었다. 물류가 들어오는 밤 11시, 편의점은 새로 들어온 상품들로 가득했다. 뒷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각김밥 진열대 앞은 편의점 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이었다. 재경은 그곳에 서서 가득 채워진 진열대를 탐색했다. 삼각김밥 밑에는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밑에는 도시락이, 도시락 옆에는 크림빵이 있었다. 재경은 가장 먼저 메론 크림빵과 마카롱을 집었다. 그 후로는 순조로웠다. 크림빵과 먹기 좋은 500mL 우유를 집고 초코 과자와 비스킷을 샀다. 그리고 다시 두 걸음 뒤로 가 피스타치오 딸기 샌드위치를 집었다.

“봉투 필요해요.”

재경이 말했다. 직원이 고개를 숙여 계산대 밑에서 봉투를 꺼내는 사이 어색한 침묵이 일었다.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찍히는 바코드 소리에 괜히 피지도 않는 담배 진열장을 바라보다가 직원이 고개를 들자 무언가에 찢린 사람처럼 가격을 보지도 않고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다. 직원이 카드 승인을 누르자 계좌와 연동된 어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왔다. 음식을 건

네반은 재경은 자취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날이 추워 뛰고 싶었지만, 가득 든 편의점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뛰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볼품없어 그러지 못했다. 재경은 두 발이 한꺼번에 허공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보폭을 유지하며 걸었다. 재경의 키는 백 칠십이 조금 넘었으므로 보폭만으로도 앞서가는 사람을 서넛 앞지를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봉어빵 트럭이 있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트럭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재경은 빠른 걸음으로 트럭과 가까워졌다. 언뜻 본 주인은 기계 앞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날이 추운데 들어가시지. 생각하다가도 그 앞에 오래 머물면 혹시 손님으로 착각할까 싶어 서둘러 트럭에서 멀어졌다. 재경의 구축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고 자주 고장 나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주장했다. 재경은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는 잘 내려오는가 싶더니 사 층에서 멈춰 내려오지 않았다. 재경은 왼쪽 손톱을 뜯으며 숫자가 바뀌길 기다렸다. 반대 손은 벌써 편의점에서 산 과자의 봉지의 끄트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재경이 다리까지 떨고 나서야 내려왔다. 재경은 서둘러, 그러나 내리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너무 급해 보이지 않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층수는 조용히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십일 층에서 멈추자 재경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몸을 기울여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고 간간히 방음이 되지 않는 문을 타고 세탁기 종료음이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재경은 비닐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재경은 떨리는 손으로 천백 일호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며 습한 공기가 재경을 덮쳤다. 아침에 빨래를 널어두고 간 탓에 집안의 공기는 눅눅했다. 재경은 음식을 신발장에 던져놓고 부산스럽게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을 지우고 귀걸이도 뺐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나서야 현관에 버려뒀던 음식을 가져와 책상 위에 펼쳐보았다. 태블릿을 꺼내 먹으면서 볼 영상을 재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일본 성우가 익숙한 목소리로 익숙한 대사를 말했다. “心臓を捧げよ!”¹⁾

재경은 가장 먹고 싶었던 메론 크림빵을 까며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되는데로 받아쳤다. 재경이 메론빵을 가득 베어 물자 입안이 인공적인 메론 향으로 가득 찼다. 식용 색소로 초록빛을 낸 크림은 지나치게 달았고 입안 가득 머금으면 느끼함에 속이 매스껍기도 했다. 재경은 크림이 묻어 미끄러워진 손으로 비스킷을 까고 피스타치오 샌드위치의 포장도 벗겨냈다. 휴대폰에서 몇 번 알림이 울렸지만 이미 찢득해진 손을 씻으러 갈 수 없어 그대로 두었다. 입안에서는 메론과 피스타치오 크림이 섞이고 있었다. 목이 막히자 미리 사둔 우유를 한 모금 넘겼다. 빵을 가득 우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재경은 그릇을 가져와 우유를 따르고 그 안에 비스킷을 두 개 담갔다. 그리고 다시 샌드위치를 먹고 메론 빵을 먹고, 다시 목이 막혀 비스킷이 든 우유를 그릇째 들고 마셨다. 우유에 녹아 흐물흐물해진 비스킷을 삼키니 버터의 감칠맛과 끝에 올라오는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재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초코 과자를 꺼냈다. 그것을 봉지째로 우유를 담아둔 그릇에 얹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에 떨어진 두어 개의 초코 과자는 자연스럽게 입속으로 넣었다. 메론 빵과 샌드위치는 이미 다 먹은 지 오래였다. 우유를 팩째로 들고 벌컥벌컥 마시던 재경은 포장된 마카롱을 집었다. 재경의 섬세하지 못한 손놀림에 한 면만 뜯어져 있던 포장 용기가 두 동강 나고 마카롱이 짓이겨져 마치 마카롱이 크림을 토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재경은 그 크림을 모두 삼키려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카롱을 한입 크게 물었다. 마침 태블릿 화면에서는 거인이 사람을 먹고 있었다. 화면 속 거인은 사람을 두 동강 내어 먹고 있었다. 거인한테는 인간이 달까? 재경은 주체

1) “심장을 바쳐라!”

할 수 없이 인간을 먹는 거인을 보며 생각했다. 거인이 한참 사람을 먹고 다시 입맛을 다실 무렵 화면에서는 극적인 음악과 함께 주인공이 이도류를 들고 등장했다.

"駆逐してやる…！この世から一匹残らず！！" 2)

대사와 동시에 자막이 떴다. 재경은 비스킷과 초코 과자를 남김없이 입에 털어 넣었다. 다시 화면을 보니 이제는 조사병단이 모두 합세해 거인을 도륙 내고 있었다. 재경은 순간 배가 터질 듯이 부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렵 배가 볼록 나온 거인이 뒷덜미를 베이고 처참히 쓰러졌다. 목이 잘린 채 앞으로 넘어진 거인은 튀어나온 배 때문에 편히 쓰러지지도 못하고 몸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재경은 정신없이 번쩍이던 화면을 꺼버리고 두 개 남은 마카롱도 싱크대에 처박아버렸다. 재경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 커버를 열고 손가락을 목구멍으로 집어넣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재경은 조용히 모든 것을 토해냈다. 음식은 들어간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처음 나온 것은 직전까지 마셔대던 우유였고 그다음에는 이자카야에서 먹었던 사시미가 나왔다. 구토물에서 비린내가 가실 무렵에야 빵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간간이 초코 과자와 비스킷 조각도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끈적한 크림은 많은 것이 나온 다음에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재경은 메론 크림을 끄집어내고 싶어 그 후로도 몇 번 억지로 물을 마시고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색소가 가득한 초록색 크림은 끝내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생리적으로 나온 눈물이 재경의 시야를 가려 재경은 난장판이 된 화장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다만 토사물은 변기 물을 두 번 내려도 쉽게 자취를 감추지 않아 재경은 직접 샤워기를 들어 변기 벽에 늘어붙은 것에 물을 뿌려야 했다. 재경은 거품 핸드워시를 손 안 가득 짜 얼굴에 파묻었다. 역한 구토 냄새가 인공적인 비누 향으로 바뀌었다. 재경의 입술 사이로 비눗물이 비집고 들어가 입안은 마치 독한 향수를 머금은 것 같았다. 재경은 얼굴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도 두 번 닦았다. 재경은 구토하고 난 다음이면 습관적으로 목부근과 턱선을 매만졌다. 부었나?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묶어보는가 하면 턱을 들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침샘 부근을 꼼꼼히 체크하기도 했다. 화장실 안에 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니 조금 전까지 먹던 음식 봉지와 빵 부스러기, 먹다 흘린 크림이 질서 없이 퍼져있었다. 재경은 일회용 비닐봉지 하나를 가져와 쓰레기를 모두 밀어 넣고 빨래통에서 적당히 눅눅한 수건을 가져와 책상을 닦았다. 싱크대에 버려진 마카롱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고 퐁퐁 묶어버렸다.

[구토 후 대처법]

[술 먹고 구토]

[습관성 구토]

[스트레스성 폭식]

재경은 침대에 누워 검색창을 두드렸다. 재경은 목이 아팠고 숨이 가빴고 배가 쓰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검색창에서는 ‘뜨거운 물 마시기’ ‘꿀물 마시기’ 같은 조언이 주르륵 나왔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아무래도 나아지겠지. 생각은 하면서도 재경은 좀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조언 중 재경이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히 누워 깊은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재경은 규칙적인 호흡을 내쉬며 오늘 있었던 미팅을 떠올렸다. 재경의 출판사와 자주 거래하는 영상 회사인데 최근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는다고에 검사겸사 참여한 미팅이었다. 재경은 책을

2) 이사야마 하지메, 『진격의 거인』, 시즌 1, 에피소드 8 中, WIT Studio, 2013. “물살해주겠어! 이 세상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여주며 은근히 자신이 디자인한 표지와 마케팅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편집장의 등쌀에 밀려 갑작스럽게 잡힌 미팅인지라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재경은 그의 표정을 읽고 기존에 목표했던 거래라도 성사시키려 열변을 토했지만, 그마저도 확답을 얻지 못했다. 의미 없는 미팅이 길어지며 이런 자리에 자신을 혼자 보낸 편집장을 원망하기도 했다. 거래처 인사는 재경이 가져온 포트폴리오나 책보다 때마침 서빙된 사케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는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야 재경이 디자인한 포트폴리오를 이전보다 성의껏 보았지만, 이내 영상 관련 직종은 야근이 잦아 여자가 하기는 힘들 거라는 말을 지껄였다.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그다음의 일들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재경의 표정이 굳는 걸 보고 조언이라며 웃었던 거래처 인사의 얼굴만 생각날 뿐이었다. 미팅을 마친 후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잔소리를 각오했지만, 예상외로 편집장에게는 수고했다는 짧은 답장만 왔다.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재경은 불을 다 꺼버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그래도 좀처럼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괜히 휴대폰을 만지며 아침에 커피를 탔했다. 재경은 그럴 수만 있다면 커피도 토해내고 싶었다. 재경은 일단 눈을 감기로 했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다.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십 분 정도라는 한 연구결과를 떠올렸다. 일 초에 하나씩 숫자를 센다면 천 이백까지 세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숫자를 이백까지도 세지 못한 채 재경은 목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그 후로도 몇 번 같은 이물감을 해소하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다.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박고 있으면 한 달 전 지하철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

그날은 휴무일이었으므로, 재경은 아침 일찍 서울 근교로 나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려고 계획한 날이었다. 재경은 출근하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그전부터 봐두었던 남양주 부근의 한 카페로 가 커피를 시키고 노트북을 열었다. 두어 시간을 작업하고 배가 고파 샌드위치를 추가 주문하려던 찰나 재경에게 연락이 왔다. 휴무인 것을 알지만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는 동료의 전화였다. 시계를 보니 정오였다. 재경은 오후 두 시까지 회사로 가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지하철 하행선을 탔다. 진접에서 출발한 열차는 충무로를 거쳐 재경을 은평구까지 데려다줄 것이다. 그 시간대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재경은 4호선 맨 끝 칸에 앉아 눈으로는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슷폼 콘텐츠를, 귀로는 차례대로 호명되는 역 명을 흘려보내며 시간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수유역쯤에서 걸음걸이가 어색한 남자가 탔다. 그는 사람들의 무릎 위에 종이를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모두 종이를 돌린 남자는 10-2칸 가운데에 꿰어앉아 상자를 내밀었다. 종이를 옆으로 썩 밀어버리는 사람도, 힐끔 읽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종이를 열심히 읽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다. 재경은 종이의 내용이 궁금하면서도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가 괜히 남자의 관심을 끌까 싶어 결눈짓으로 보이는 글자만을 더듬더듬 읽었다.

“집이 없어서... 노숙을... 발이 잘려... 도움을... 외면하지 말아...”

재경이 엮드려있는 남자를 힐끔 봤다. 정말 남자의 왼쪽 발목 아래가 비어있었다. 시간이 2~3분 정도 흐르고 아무도 그에게 반응하지 않자 남자는 옆 칸으로 이동하려고 하는지 힘겹게 일어서다가 크게 휘청거렸다. 곧 큰 소리를 내며 거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의 상자에서 얼마 없는 돈이 쏟아졌고 그는 넘어진 채로 돈을 줍기 위해 몸을 휘적였다. 10-2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남자를 연민하면서도 선뜻 나서 도와주지 못했다.

재경은 조용히 일어나 같이 돈을 줍기 시작했다. 남자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재경은 말 없이 돈만 주워주었다. 마침 열차 내에서 구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재경은 방송을 의식하며 남자에게 상자를 내밀고 고개를 조금 숙여 꾸벅 인사했다. 이제 그만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남자는 가려는 재경의 손목을 꼭 붙잡았다.

“아가씨, 도와주세요. 현금을, 조금만...”

“현금이 없어서요...”

그의 행동이 갑작스러웠기에 재경이 남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 것은 결코 고의가 아니었다. 당혹감에 나온 행동이었기에 재경의 팔이 남자의 상자를 쳐, 그의 돈이 다시 지하철 바닥에 흩어진 것도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다. 놀란 재경은 사과하며 떨어진 돈을 다시 주웠다. 그러나 이미 흥분한 남자는 갑자기 빈 상자를 집어 던지며 요즘 것들은 인정머리가 없다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난동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기도 하고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남자는 다시 재경을 바라보았다. 재경은 그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는 재경보다 빨리 다가가 다시 재경의 왼쪽 손목을 낚아챘다.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손목이 부러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재경의 왼쪽 손에는 줍다가 만 천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려있었다. 남자는 재경이 쥐고 있는 지폐를 우악스럽게 빼앗았다. 남자는 재경에게 도둑년이라고 소리쳤다. 재경이 남은 오른손을 휘저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여전히 재경의 손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울부짚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했다. 종이를 치워버린 남자 바라보고는 왜 자신의 종이를 거들떠보지 않냐며 따지기도 했다. 여전히 재경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잡은 채였다. 남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경찰에게 제압당해 열차 밖으로 내보내졌다. 재경은 남자에게서 벗어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 재경의 옆에는 천 원짜리 네 장과 오백원짜리 일곱 개, 백원짜리 세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남자의 손자국대로 멍이 들었다. 경찰이 다시 들어와 재경을 부축했다. 기관사는 열차 내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으로 잠시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을 했다. 재경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카메라를 끄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경찰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는 표정을 적당히 지었다. 당혹감이 가시니 회사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재경은 뒤이어 들어오는 열차를 탔다. 다시 충무로를 지나 은평구까지 가야 했다.

회사에 도착한 재경은 지하철에서의 일을 내색하지 않았다. 편집장은 갑자기 납품일이 당겨져 급하게 재경을 부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반차를 주겠다는 말도 함께였다. 재경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편집장도 재경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교정 파일을 넘겨주었다. 눈으로는 파일을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지하철에 머물러 있었다. 글자가 마음대로 떠다녀 교정은커녕 그것을 잡아다 화면에 머물게 하는 것도 버거웠다.

How can God be omnipotent and benevolent and allow for evil to exist? Is God willing to prevent evil but unable? Then he is impotent.

신은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신은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나요?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활자도 한동안 바라보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어색한 번역체로 쓰인 문장이라 교정해야 했지만, 재경은 왠지 그것을 번역체로 따라 쓰고 싶어졌다. 갑자기 펜을 들어 문장을 적는 재경의 행동에 옆자리 동료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주말 내로 납품해야 한

다는 편집장의 독촉에 참견을 그만두었다. 그 문장을 적은 뒤로는 교정이 수월했다. 많은 양이었지만 야근까지 감행한다면 못할 양도 아니었다. 재경은 집에 돌아와서도 잊히지 않는 그 문장을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위에 붙여놓았다. 서툰 말투가 거침없게 느껴졌고 그래서 신이 자신과 같은 처지처럼 보였다. 그 '신'이 자신과 같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재경은 마음껏 비웃다가도, 그것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껴질 때면 갑자기 울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된 느낌이었으며 여호와에게 밀린 모세처럼 억울하기도 했다. 재경은 자주 이 글귀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을 다시 필사하거나 소리 내 읽어보기도 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노숙자에게 손목을 잡힌 이후로 재경은 자주 절망에 빠졌고 더 허기졌다. 재경은 사람들에게 더 촘촘히, 그러면서도 밀도 있게 속하고 싶었다. 굶은 목적으로 재개봉해야만 만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오티티에서 7천 원만 결제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나 재개봉에 뒤지지 않는 화양연화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

화장실에서 나온 재경은 자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거실 불을 켰다. 태블릿을 켜더니 아까 보던 애니메이션이 뜬금없는 장면에서 멈춰있었다. 재경은 멈춰있는 오티티를 종료했다가 다시 켰다. 가장 첫 화면에는 국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드라마가 표지를 바꿔가며 등장했다. 재경은 마우스 커서를 영화 쪽으로 옮겼다. 지난밤에 봤던 중경삼림과 화양연화의 러닝타임이 절반씩 남아있었다. 밤을 새우기에는 패왕별희가 제격인데. 재경은 결국 해피투게더를 선택했다. 시간은 어느덧 두 시였고 영화를 다 봐도 네 시가 안 될 것이다.

재경은 소파에서 눈을 떴다. 영화는 엔딩 크레딧에서 멈춰있었다. 커튼 틈을 비집고 쏟아지는 햇빛은 눈이 부셨고 휴대폰에서는 일곱 시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얼떨결에 소파에서 눈을 뜬 재경은 곧 배가 불쾌하게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어나 앉아 누웠던 자리를 확인하니 소파 커버에 피가 묻어 있었다. 재경은 소파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봐두었던 고함 항아리를 살 걸 하고 후회했다. 재경은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어 세탁기에 쑤셔 넣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 부스에 서니 핏물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마치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았고 그것을 쓸어버리려 샤워기를 트니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물이 재경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샤워 부스가 좁아 고인 물을 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다행히 물은 늦지 않게 따뜻해졌다. 샤워를 마친 재경은 세면대 물을 받고 세탁기에 넣어두었던 바지와 팬티를 꺼내왔다. 재경은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담고 능숙하게 핏자국을 지웠다. 속옷에 묻어 있는 피가 세면대에 받아진 물로 옮겨가며 진한 피비린내가 났다. 투명했던 물이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배수구를 열어 물을 빼고 나서도 열은 핏자국이 남아있어 재경은 그것을 지우기 위해 세면대를 문질러야 했다. 재경은 빨랫감을 대충 짜서 다시 세탁기 속으로 넣고 그것을 스피드 워시로 돌려버렸다. 재경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기초화장을 하는 동안에도 빨래는 계속 통돌이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돌아갔다.

재경이 자취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회사와의 거리였다. 덕분에 재경은 출근 시간 삼십 분 전에 나와도 지각하지 않았다. 재경은 한 시간 삼십 분의 준비를 마치고 현관 밖을 나섰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오늘을 망한 하루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오전 여덟 시 삼십 분이었다. 재경은 배가 부르지 않았고, 따라서 더부룩하지 않았고, 장국영과 양조위가 꽤 좋은 수면제였는지 잠든 시간에 비해 많은 피로를 느끼지는 않았다. 재경은 회사

일 층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다. 피곤하지 않아도 오전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재경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열 시, 출근길에 마신 아메리카노가 꺼질 즈음이면 재경은 어김없이 배가 고팠다. 전날에 속을 비우고 잔 탓인지 배는 더 부산스럽게 요동쳤다. 점심시간, 재경은 향한 곳은 인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게로 향했다. 재경은 철학과를 나와 인쇄 출판사에 취직했는데, 전공을 살릴 수 없을 거라던 일전의 기대와는 달리 매일같이 프로이트, 제임스, 알포드에 둘러싸여 철학 서적을 교정하고 있다. 근무는 대개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졌고 재경의 회사는 오픈 파티션이었기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점심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 시키기 힘들었고, 그러면 재경은 다시 속을 게우고, 빈속에 간식을 채워 넣는 행위를 반복하게 될 뿐이었다. 그런 이유로 재경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많이 먹는 것을 꺼렸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지 않았고, 밥은 일 인분을 겨우 먹거나 남기는 일도 많았다.

*

재경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하고 네 시에 퇴근한다. 재경은 일 년 단위의 계약직이었다. 입사 당시 업무 능력과 별개로 상황에 따라 재계약은 보장할 수 없다던 편집장은 삼 개월이 지나자 철학 서적 교정을 모두 재경에게 넘겼다. 일 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할 때, 편집장은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연봉 인상 없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재경이 원하는 것 또한 보장된 휴무와 정시 퇴근이었기에 재경은 군말 없이 그것에 동의했다. 재경이 퇴근 후 하는 일은 이직 준비였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회사에 보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해외 대학에 메일을 보내보기도 했다. 이러다 답석 대학원에서 답장이 와도 재경은 당장 해외로 떠날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입시 철이 되면 미련을 떨치듯 유명 대학 이곳저곳에 원서와 메일을 넣었다. “불합격” 글자를 보면 역시나 싶은 감정과 함께 처절한 혐오와 패배감이 들끓었다.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매번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대학원 사이트를 뒤적이는 것을 멈추고 기업에 보낸 포트폴리오 메일의 수신확인을 눌러보았다. 대학원보다 더 간절한 것은 이쪽이었지만 전송된 메일은 대부분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었다. 뒤늦게 수신확인이 뜨는 경우가 있어도 답변은 그중 일부에서만 왔고, 그마저도 “지원자님의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하였지만”으로 시작해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로 끝났다. 신중한 논의와 꼼꼼한 검토를 거친 결과는 항상 거절이었다. 재경은 이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대충 검토했으면 조금 나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경은 드물게 답신을 받아도 꼭 회신 메일을 보냈다. 대개는 검토해주어 감사하다는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왼쪽 손목을 굽으며 [보낸 메일함]만 가득한 노트북을 덮었다.

재경은 회화과를 복수 전공했다. 아직 신입생이던 시절 회화과 복수전공을 위해 교양 대신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예대에 다니는 친구를 졸라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재경은 한때 전공을 살려 입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했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4학년 2학기, 이듬해 전기 입학의 목표로 준비했던 대학원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재경은 이런저런 핑계로 졸업을 미뤘다. 그러나 재경은 학교에서 마련해 준 일 년간의 유예 기간 내에 준비한 대학원과 목표로 하던 디자인 회사 중 어느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재경은 떠밀리듯 졸업을 하고 취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재경이 들어가기에 아쉬운 회사라고 말했고 그럴 때마다 재경도 이직 준비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재경은 입사 후 처음 2년 동안은 이직이 아닌 대학원을 준비했다. 재경

의 미술은 주관적으로 뛰어났지만, 객관적으로 천재적이지는 못했다. 대학원을 위해 준비한 목돈이 전세금에 보태지고, 2년 전 양식에 맞춰 준비한 해외 비자 서류가 이면지로 전락했을 무렵 재경은 끝내 대학원을 위해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회사 지원서로 바꾸기 시작했다.

거듭된 실패와 차오르는 나이는 재경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허기지게 했다. 재경은 혼자 있으면 우울했고 먹지 않으면 불안했다. 그림 포트폴리오를 위해 백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때도, 해외 대학원 사이트를 번역해가며 모집 요강을 정리할 때도 입안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재경의 몸무게는 정상에서 조금 모자라게 유지되었다. BMI를 계산한다면 저체중일 것이다. 재경은 입고자 하는 옷을 대부분 입을 수 있었고 더워지는 계절에 맞춰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말랐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재경은 철학 서적을 좋아했다. 도서관에 가면 800번대가 아닌 000번대부터 도는 습관이 있었다. 재경은 나름대로 유행에 맞춘 옷을 즐겨 입었으며 계절마다 옷을 세 벌씩 샀다. 옷을 땀 눈꼬리가 유쾌하게 휘어졌으며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분홍빛의 색조 화장을 즐겼다. 그러나 재경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꼈고 그 감정은 입안에 무언가를 집어넣기 전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해내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재경을 지하철 10-2칸으로 데려갔다.

*

그날 밤, 꿈속에서 재경은 다시 열 번째 칸의 노숙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 주거나 마주하려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의 무릎 위에는 그녀의 그래픽 포트폴리오가 올려져 있었고, 그들은 대개 그것을 밀어버리거나 결눈질로만 보았다.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재경에게 말을 건다. 그는 재경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재경이 덩달아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재경이 그가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신중한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아쉽게도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의 입이 재경의 귀에서 멀어졌다. 재경의 시야에 그의 뒤통수와 귀, 이어 움푹 들어간 볼과 총기 없는 눈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코끝과 같은 선으로 떨어지는 돌출된 입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지난밤 미팅에 나온 거래처 직원과 같았다. 재경은 반사적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상대는 이미 거절을 말했지만, 재경의 입에서는 “포트폴리오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답변을...”이라는 인사말이 재생되고 있었다. 재경의 말을 들은 그가 한쪽 입꼬리만 올렸다. 재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일어서는 그를 올려다보며 재경은 자신이 주저앉아있음을 깨달았다. 순간 재경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물어뜯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생각과 동시에 그를 향해 도약하자 몸이 가벼웠고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재경의 앞니는 정확하게 그의 코를 물었다. 당황한 그가 재경을 떨쳐내려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떨어진 것은 그의 코였고 재경은 그것을 잘근 잘근 씹었다. 그것의 식감은 질기고 짹짹했다. 코안에 농축돼있던 콧물이 크림 같이 느껴졌다. 맛을 본 재경은 피를 흘리는 남자의 얼굴을 잡고 눈을 파냈다. 그걸 씹으니 입속에서 수란이 터지듯 비리고 물컹한 느낌이 났다.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갔다. 10-2칸에는 그와 재경 둘뿐이었다. 그는 손을 허우적거렸다. 재경은 귀를 물어뜯고 볼도 도려냈다. 여기까지 다다르자 어디선가 나타난 이도류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재경은 조사병단이 된 그의 칼날을 피하는 거인이 되어 다시 그의 몸을 찢고 팔을 뽑아 한입에 넣었다. 그의

몸을 다 먹어치웠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얼굴과 몸통이 날아간 그는 입만 삐뚤어졌다. 그에게 주어졌던 이도류도 거인에 의해 박살난지 오래였다. 재경도 그 앞에서 삐뚤어졌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재경이 그를 닦아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재경은 나오지 않는 소리를 뒤로한 채 목구멍에 손을 넣었다. 첫 번째 토사물이 목을 긁고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이 재경의 몸 밖으로 뱉어지기 직전 재경은 잠에서 깼다.

재경은 화장실에 갔다. 용변을 보고 물을 내렸다. 화장실에서 피 냄새가 진동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창문을 열자 새벽의 습한 공기가 끼쳤다. 재경은 배에서 허기를 느꼈다. 꿈속에서의 포식이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재경은 다시 노트북을 켜다. 그새 수신확인 메일이 하나 더 늘었다. 여전히 답신은 오지 않았다. 재경은 배달 어플을 켜 배달 가능 가게를 검색했다. 새벽 네 시에도 배달하는 돈가스집이 있었다. 새벽 네 시에 장사하는 가게와 배달하는 기사와 주문하는 재경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느껴졌다. 재경은 돈가스를 삼 인분 시켰다. 리뷰 이벤트로 새우튀김도 받았다. 동이 틀 무렵 만찬을 재경은 리뷰 게시판에 들어가 막 개봉한 돈가스 사진과 다 먹은 빈 그릇 사진을 첨부했다. 별점 네 개와 함께 “오랜만에 걸스 나잇, 다들 저녁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팠는데 새벽 배달 가게 너무 귀해요.”라고 시작하는 멘트를 등록했다. 뒤이어 가게 사장으로부터 다음에는 별 다섯 개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달렸다. 날이 완전히 밝았고 재경은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